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홍성국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2844
----------	------

발의연월일 : 2020. 8. 10.

발 의 자 : 홍성국 · 양정숙 · 전용기
홍영표 · 박영순 · 이수진(비)
김경만 · 남인순 · 박성준
윤관석 · 강민정 · 김민석
윤재갑 · 정청래 · 이용우
의원(15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원칙적으로 소유하지 않은 상장증권의 매도를 금지하나, 증권시장의 안정성과 공정한 가격형성을 위하여 차입한 상장증권으로 결제하고자 하는 매도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되고 있음.

그런데 무차입공매도 등 상장증권에 대하여 허용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공매도를 하거나 그 위탁 또는 수탁을 하는 위법행위에 대하여는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식으로 제재를 가하고 있는 바, 과태료는 경미한 위반행위에 부과되는 금전제재의 성격을 가지고 있어 자본시장의 신뢰를 훼손시키는 불법공매도 행위를 처벌하기에는 부족한 제재이며 과태료 수준 또한 그 금액이 불법공매도를 통해 얻은 금전적 이득에 미치지 못하는 실정임.

이에 불법공매도 행위에 대한 처벌 수준을 과태료에서 과징금으로
상향하고, 과징금액 기준을 주문금액으로 하는 한편, 형사처벌의 근거
를 마련함으로써 불법공매도가 무거운 범죄행위라는 인식을 형성하고
자본시장의 신뢰성을 높이려는 것임(안 제429조의2 및 제443조제1항).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29조의2의 제목 “(시장질서 교란행위에 대한 과징금)”을 “(시장질서 교란행위 등에 대한 과징금)”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금융위원회는 제180조를 위반하여 상장증권에 대하여 허용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공매도를 하거나 공매도 주문을 위탁한 자 또는 공매도 주문을 수탁한 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위반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1. 공매도를 하거나 위탁한 경우에는 제180조를 위반한 공매도 주문 금액
2. 공매도 주문을 수탁한 경우에는 제180조를 위반하여 수탁한 공매도 주문금액

제443조제1항에 제10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0. 제180조를 위반하여 상장증권에 대하여 허용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공매도를 하거나 그 위탁 또는 수탁을 한 자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429조의2(시장질서 교란행위에 대한 과징금) (생략)	제429조의2(시장질서 교란행위 등에 대한 과징금) ① (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
<신설>	② 금융위원회는 제180조를 위반하여 상장증권에 대하여 허용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공매도를 하거나 공매도 주문을 위탁한 자 또는 공매도 주문을 수탁한 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위반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1. 공매도를 하거나 위탁한 경우에는 제180조를 위반한 공매도 주문금액
	2. 공매도 주문을 수탁한 경우에는 제180조를 위반하여 수탁한 공매도 주문금액
제443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그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의 3배 이상 5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다만,	제443조(벌칙) ① ----- ----- ----- ----- -----.

<p>그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이 없거나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 또는 그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의 5배에 해당하는 금액이 5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벌금의 상한액을 5억원으로 한다.</p> <p>1. ~ 9. (생략)</p> <p><u><신설></u></p> <p>②·③ (생략)</p>	<p>-----</p> <p>-----</p> <p>-----</p> <p>-----</p> <p>-----</p> <p>-----</p> <p>-----</p> <p>1. ~ 9. (현행과 같음)</p> <p><u>10. 제180조를 위반하여 상장증권에 대하여 허용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공매도를 하거나 그 위탁 또는 수탁을 한 자</u></p> <p>②·③ (현행과 같음)</p>
---	--